

중국 소비시장 3월 3,4째 주 핫 이슈
중국의 단독 두자녀(单独二胎) 정책, 기회인가? 위기인가?



키워드: 单独二胎, 助孕汤(助孕药), 月嫂, 保姆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대표되는 한국의 70년대 산아제한정책은 8,90년대의 ‘잘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를 거쳐 현재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변화해왔다.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산아제한 정책 슬로건은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오래 전의 일이 되었다.

이웃나라 중국의 출산 정책 역시 1980년에 계획생육이라고 불리는 산아제한 정책기를 거쳐 작년 12월 단독 두자녀 정책의 발표 이후 올해 2014년 중국의 여러 성과 도시에서 산아제한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33년간 일관된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가 중국의 경제와 산업에 몰고 올 변화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정책의 변화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잡은 산업은 무엇이고, 위기를 맞게 된 산업은 무엇인가?

I. 단독두자녀(单独二胎)정책



단독두자녀(单独二胎)정책은 이전의 계획생육(计划生育, 사실상 한가구 한자녀 정책)이라고 불리는 산아제한정책에서 완화된 형태로 부모 중 한 쪽이 외동(独生子女)인 경우 두자녀를 허용하는 산아제한 완화 정책이다. 1980년 계획생육이 시행된 이래 출산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은 33년 만이다.

개정된 출산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각 성(省)의 상황에 따라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저장(浙江), 장시(江西), 안후이(安徽),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지에서 시행

중이며, 쓰촨(四川)의 경우 19일 표결을 거쳤으며 다른 성(省)들도 시행 준비 중에 있다.

변화된 출산정책이 향후 중국의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급속한 노령화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아제한 완화 정책을 통한 인구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켜 부양의 의무를 경감시키고, 중단기적으로는 소비증가에 의한 내수시장 진작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유, 영·유아용품 및 교육시장의 활황은 관련업종의 주가상승을 통해 이미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아제한 완화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빛과 함께 그림자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단독두자녀 정책의 시행은 누구에게 기회를 가져다 주고, 누구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가? 3월 3,4째 주에 중국에서 발표된 여러 소식을 통해 알아보자.

II. OPPORTUNITY 기회

임신보조용품 (助孕用品)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宝)에서 판매하는 임신보조 용품은 입욕제, 한약재, 팔찌, 파스, 임신보조 영양품 및 보건용품 등 가지각색이다. 특히 중의학이라고 불리는 한방의학과 사상의학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체질개선과 신체의 기를 북돋아 주는 임신보조 영양탕(助孕汤)과 한약재가 가장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타오바오(淘宝)에서 임신보조 영양탕을 판매하는 한 점주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둘째를 가지고 위해 노력하는 부녀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며 실제로 그들의 임신보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¹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百度)에는 명조 영락제부터 전해 내려온 소씨(邵氏)가문의 임신보조 영양탕 비법이 소개되어 있다.

중국어로 쭈원탕(助孕汤)이라 불리는 임신보조 영양탕은 콩, 두부, 생선, 한약재 등 한국인들에게도 비교적 친숙한 재료로 만든다. 가장 대표적인 쭈원탕은 '당귀 금은화탕'으로 당귀 50g, 금은화 15g, 붉은 대추 10알, 검은콩 한 줌, 갈색 설탕 약간, 달걀 3~5알을 함께 솥에 넣고 푹 끓여내면 완성된다.

염주, 불상 등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장식품(吉祥飾品)

단독두자녀 정책 발표 이후 장식품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불상과 염주 등 길한 운을 가져다 주는 불교관련 용품의 판매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길한 운을 가져다 주는 장식품을 가게의 전면에 배치하거나 특별 코너를 마련해 전시하는 등 판매점의 상품배치도 달라지고 있다. 중국의 한 신문은 심천의 장식품 판매점 점주들이 1000위안(한화로 약 174,150 원)짜리 관음불상에 관한 수요량이 10%~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전보다 주문 수량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예로부터 집안의 평안과 염원의 성취를 위해 집안에 불상을 두고 염주를 끼는 중국 민가의 풍속과 연관이 있다. 불교 용품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길하게 여기는 붉은 끈에 옥을 꿰어 만든 각종 장식품과 장신구의 매출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산후도우미(月嫂)와 가정부(保姆)

산부 및 간난아기의 일상생활을 돌보며 전문적인 컨설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도우미인 위에싸오(月嫂)와 가사일을 돕고 아이를 돌보는 가정부인 바오무(保姆)는 단독두자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산후도우미의 급여는 월 700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²했으며 산후도우미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직업여성들과 전업주부들이 산후도우미와 가정부 시장으로 직업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갓 대학을 졸

¹ 深圳新闻网-深圳商报, 张为真, '新政未落地孕妇产市场已激活', 2014.02.24 의 신문보도 일부 인용.

² 中国新闻网, '月嫂薪酬十年里涨十倍因职业女性转行', 2014.03.19. <http://www.chinanews.com/sh/2014/03-19/5968294.shtml>.

업하거나 졸업예정에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산후도우미 및 가정부 전문양성소 또한 성행하고 있다. 중국의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크게 산모돌봄 서비스와 아기돌봄 서비스로 나뉘며 구체적인 서비스와 가격은 아래와 같다.

1. 산모돌봄 서비스: 산모의 모유수유지도, 산모의 목욕과 입욕제 준비,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제공, 심리상담 등
2. 아기돌봄 서비스: 기본적인 목욕, 기저귀 갈기, 분유먹이기, 청결적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갓난 아기 생활용품 소독, 매일 관찰일지 작성 등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등급과 가격³

등급	가격(회원가, 한달 기준)	비고(한국 원화)
일반급(顶级月嫂)	7,500 위안	1,306,125 원
스타급(明星月嫂)	8,500~10,000 위안	1,480,275~1,741,500 원
고급(金牌月嫂)	12,000~15,000 위안	2,089,800~2,612,250 원
최고급(超金牌月嫂)	18,000 위안	3,134,700 원
특수서비스(特色服务)	15,000~20,000 위안	2,612,250~3,483,000 원
1회 서비스	398 위안	69,300 원

* CNY / KRW: 174.15, 2014.03.21 기준으로 환산

* 특수서비스(特色服务): 일, 이란성 쌍둥이 전문

Ⅲ. THREAT 위기

태아성별감정검사 가격의 하락



중국 본토의 경우 태아성별감별이 비의료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병원에서 시행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홍콩으로 건너가 태아성별감정을 받는 중개업무가 일종의 '회색시장(그레이 마켓)'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통 몇 백 위안에 해당하는 혈액 속 DNA를 통한 감정법이 중개기관을 거치게 되면 많게는 중개수수료만 8000위안을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단독두자녀 정책의 발표 이후 태아성별감정과 관련된 비

³ 산후도우미 중개업체인 赋予国际母婴护理 (fuyu international maternal and child care) 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 <http://fymy.org/>

용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많게는 43%가량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중국에서 한가구 한자녀의 산아제한정책은 음성의 태아성별 감정이라는 회색시장을 만들어 냈지만, 단독두자녀 정책의 발표 이후 태아의 성별에 관한 집착은 이전보다 누그러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태아성별감정의 수요가 줄어들어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법칙에 따라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